

# 2023 강릉대도호부관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빛으로 만나는 강릉의 신화

가이드북  
Guidebook

· 무료관람

2023.10.14.(토) ~ 11.5.(일)

19:00 ~ 23:00 | 강릉대도호부관아 일원



2023 강릉대도호부관아  
미디어아트 홈페이지



2023 강릉대도호부관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BANGNEUNG CULTURAL  
HERITAGE MEDIA ART 2023

## CONTENTS

행사개요	03
행사소개	04
행사일정	05
행사장 안내도	06
행사장 구역별 안내	07
<b>[제 1구역]</b> 미디어아트 작가 및 작품 소개	09
<b>[제 2구역]</b> 미디어아트 작가 및 작품 소개	13
<b>[제 3구역]</b> 미디어아트 작가 및 작품 소개	14
<b>[제 4구역]</b> 미디어아트 작가 및 작품 소개	16
<b>[제 5구역]</b> 미디어아트 작가 및 작품 소개	21
<b>[기타구역]</b> 미디어아트 작가 및 작품 소개	22
연계소식	23





## 강릉의 신화, 빛으로 만나다.

일제강점기 때  
강릉의 12신을 모셨던 '대성황사',  
미디어아트로 되살린 '대성황사'로  
강릉 신화의 물결기가 다시 흐른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우리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대성황사를 철거하고\* 그 위에 신사를 지었다.

이제 그 자리에 오늘날의 미디어아트 기술로 '대성황사'를 새롭게 세우고, 그곳에 모셨던 강릉 단오제의 주신(主神) '범일국사'를 미디어아트로 새롭게 만나다.

그난 속에도 멈추지 않았던 강릉의 정신이 신화와 함께 빛이 된다.

\* <김선풍·김경남 공저, 江陵端午祭研究, 보고사(1998)>

### < 마침내 빛으로 만나는, 2023 강릉대도호부관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

2023 강릉대도호부관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는 천 년에 걸쳐 강릉을 지켜온 '강릉대도호부관아'에서 미디어·디지털·IT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적 스토리를 소재로 한 감동적인 미디어아트 프로그램으로, 문화유산의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전시·체험 연계프로그램 행사입니다.

### <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과 함께 첫 발돋움을 내딛는다 >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미디어·디지털·IT기술을 문화유산에 접목·활용하여 지역 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쉽게 알리고, 다양한 융합기술로 문화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향유하는 신개념 활용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강릉을 포함한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운영됩니다.



[국보] 임영관 삼문



[사적] 강릉대도호부관아



[보물] 칠사당

## 2023 강릉대도호부관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행사개요

행 사 명	2023 강릉대도호부관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주 제	빛으로 만나는 강릉의 신화
행사일시	2023.10.14.(토) ~ 11.5.(일) / 19:00 ~ 23:00
장 소	강릉대도호부관아(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영로131번길 6)
주최/주관	문화재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문화원, 한국문화재단
프 로 그 램	5개 구역, 41개 미디어아트 콘텐츠



GANGNEUNG CULTURAL HERITAGE MEDIA ART 2023

## 2023 강릉대도호부관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를 진행하면서

**첫째,** 지역 문화유산의 특수성과 차별성이 담보되는 문화 콘텐츠 창작.

강릉의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문화유산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담아내고자 했다.

**둘째,** 창의적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미디어아트 콘텐츠 창작.

기술적인 콘텐츠 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바탕이 되는 예술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했다.

**셋째,** 다양한 신진 예술작가들의 등용문이 되는 강릉대도호부관아 미디어아트.

이번 행사를 위해 전국의 신진 미디어아트 작가 33명이 참여했다. 문화유산 미디어아트가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의 작가가 참여한 전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넷째,** 문화유산의 다양한 이야기와 주제가 있는 ‘스토리 텔링형 미디어아트’ 제작·연출

‘무형의 유형화’를 함께 해줄 강릉문화원과 이 행사에 동참하는 미디어아트 참여 작가들, 그리고 이를 응원하고 즐겨주실 강릉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창의적 문화유산 미디어아트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단오제를 보유한 문화도시 강릉이 미디어 문화유산 도시로 거듭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

총감독 김은규

“고을 사람들이 해마다 5월 초하루에 번개와 향화를 갖춰 대관령에서 맞아다가 명주 부사에 모신답니다. 그리하여 닷새 되는 날 갖은 놀이로 신을 기쁘게 해드린답니다.”

가을이 무르익는 밤, 강릉대도호부관아에서 100여년 만에 재건된 대성황사를 통해 우리의 수호신과 빛으로 노닐며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길 바란다.  
당신이 사는 이 땅은 본디 12신이 지켜주는 복되고 복된 땅이었으니 말이다.

예술감독 고은채





## 2023 강릉대도호부관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운영 시간

10월 14일(토)~11월 5일(일) 19:00~23:00 강릉대도호부관아 일원

- 미디어파사드는 주차별로 순차 상영됩니다.
- 기상 및 현장 상황에 따라 운영 스케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부 프로그램 일정

1

#### 작가와의 대화

장소 : 강릉대도호부관아 내 작은도서관 (동헌 좌측에 위치)

[신청방법: 네이버폼 사전 접수 1일 기준 최대 15명(선착순) \*잔여 좌석 현장 접수 가능]

- 10월 14일(토) 17:00~18:00 빛으로 그리는 여행 / 허이나 작가
- 10월 21일(토) 18:00~19:00 인공지능과 미디어아트 / 고희선 작가
- 10월 22일(일) 18:00~19:00 거리로 나온 현대미술, 미디어아트 / 조민선 작가
- 10월 28일(토) 18:00~19:00 프로젝션맵핑의 세계 / 김상근 작가
- 10월 29일(일) 18:00~19:00 미디어아트로 그리는 문화유산 / 고은채 작가
- 11월 05일(일) 17:00~18:00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 / 노진아 작가



2

#### 미디어 다도 체험

장소 : 서헌

[신청방법: 현장접수만 가능 / 1회 기준 최대 15명 내외(선착순)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 운영시간 1일 3회 (주말에만 운영)  
- 1회 19:30 | 2회 20:30 | 3회 21:30 ※소요 시간: 1회당 20분 이내
- 신청인원: 1회당 15명 내외

3

#### 시민 영상 페스타

장소 : 전대청 후면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gncc.kyr@gmail.com)]

(누구나 자유영상 접수 가능) \*신청서 양식 홈페이지 참고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20:00~21:00



4

미디어아트 교육생 작품전시 장소: 전대청 후면 ■ 운영시간 : 매주 목요일 20:00~21:0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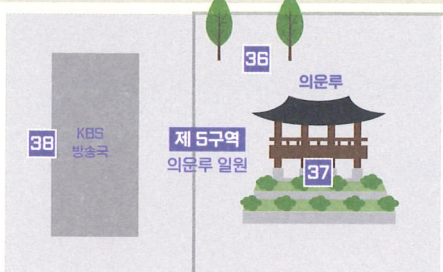
미디어파사드 공모전 수상작 전시 장소: 임영관 삼문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20:00~21:00

6

이동식 자전거 맵핑 장소: 행사장 내외 ■ 운영시간 : 주말 19:00~23:00



# 행사장 안내도



- 39
- 40
- 41





## 행사장 구역안내

<b>제 1구역</b>	신화, 빛으로 내려왔다	칠사당 일원	강릉의 신화와 공간의 역사를 알리는 공간
<b>제 2구역</b>	신화, 빛으로 깨어나다	아문, 동헌 일원	미디어아트 융·복합 공연공간
<b>제 3구역</b>	신화, 빛으로 아롱지다	임영관 삼문 일원	미디어아트 융·복합 전시공간
<b>제 4구역</b>	신화, 빛으로 노닐다	중대청, 전대청 일원	미디어아트 융·복합 체험공간
<b>제 5구역</b>	신화, 빛으로 머물다	의운루 일원	미디어아트 전시 및 야경 조망공간

## 구역별 세부안내

### 제 1구역

- 1 칠사당 1  
한지 쉼도우 라이팅 1
- 4 칠사당 숲 1  
숲 속 맵핑
- 7 칠사당 대청마루  
글래스 미디어아트 1
- 10 칠사당 화장실 담장  
담장 맵핑

- 2 칠사당 앞 행랑채 1  
전통 민화 영상 전시
- 5 칠사당 숲 2  
대성황사 홀로그램
- 8 칠사당 마당  
미디어 수조
- 11 의운루 앞 잔디광장  
만화경

- 3 칠사당 앞 행랑채 2  
실내 맵핑
- 6 칠사당 2  
한지 쉼도우 라이팅 2
- 9 칠사당 은행나무  
터치 인터랙션 아트
- 12 의운루 앞 잔디광장  
인피니티 미러

### 제 2구역

- 13 아문(안쪽)  
미디어파사드

- 14 동헌  
미디어파사드

- 15 동헌 앞  
이머시브 사운드

### 제 3구역

- 16 메인 광장  
청사초롱 터널

- 17 임영관 돌담  
미디어파사드

- 18 임영관 삼문  
미디어파사드

### 제 4구역

- 19 임영관 삼문 후면  
라이트 정원
- 22 중대청  
한지 쉼도우 라이팅
- 25 전대청  
인공지능 작품 전시
- 28 전대청 후면  
미디어파사드
- 31 서헌  
이머시브 사운드
- 34 중대청 좌측 마당  
소원나무

- 20 임영관 삼문 후면 일원  
식물학 소통
- 23 중대청 우측  
전통 파티클
- 26 동대청  
글래스 미디어아트 2
- 29 서헌 옆 마당  
공간 조형물 2
- 32 중대청 좌측  
미디어파사드
- 35 중대청 좌측 마당  
소원 영수증 사진기

- 21 임영관 삼문 후면 일원  
인피니티 미러룸
- 24 중대청 후면  
그림자 영화관
- 27 동대청 우측 마당  
공간 조형물 1
- 30 서헌  
미디어 다도
- 33 중대청 좌측 마당  
인터랙티브 바닥 맵핑

### 제 5구역

- 36 의운루 숲속  
다중 홀로그램

- 37 의운루 앞  
가야금 맵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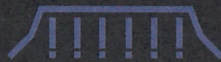
- 38 대성황사터 표지석  
대성황사터 VR

### 기타구역

- 39 행사장 내외  
자전거 맵핑 2대

- 40 행사장 내외  
이동식 사운드 비주얼

- 41 행사장 내외  
AR(7개)



# 2023 강릉대도호부관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GANGNEUNG CULTURAL HERITAGE MEDIA ART 2023

미디어아트 작가 및 작품 소개





## 1. 한지 쉼도우 라이팅 1

칠사당 1



작가 정도행

## | 할머니가 들려주는 신주 이야기

강릉단오제 한 달 전 시작되는 신주 빛기는 단오의 시작을 알리고 강릉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신주 빛는 과정을 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꾸며 우리의 전통이 계속하여 아름답게 전승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 2. 전통 민화 영상

칠사당 앞 행랑채 1



작가 임병철

## | 신의 서재

그림 위에 빛을 얹어 신의 서재를 그리고자 했다.

그림이 인간의 영역이라면 그 위에 살아 움직이는 빛은 신의 영역.

화폭 속 책가도의 책장에는 여러 이야기가 존재하며, 그 이야기의 글 사이로 공기처럼, 빛처럼 머무르는 신의 존재를 담고자 했다.

인간의 모든 이야기 속에 머무르는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 3. 실내 맵핑

칠사당 앞 행랑채 2



## | 신의 연못

맑은 연못에 발을 담근 한 마리의 학과, 세 마리의 잉어가 연꽃 사이로 노니는 일로연과(一鸞蓮果)의 시간. 그 시간 속에 빛으로 머무르는 신의 존재를 담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머무르는 반짝이는 찰나의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영원히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신의 존재이자 깨달음일 것이다.

## 4. 숲속 맵핑

칠사당 숲 1



## | 신의 후원

어두운 밤에도 빛의 향기가 머무는 신의 후원

### 5. 대성황사 홀로그램

철사당 숲 2



작가 전해영

#### | 빛의 회복

지난날 철거되었던 대성황사를 재건한다.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 이동하여 일제강점기 때 철거되었다고 알려진 대성황사를 되살리는 과정을 미디어아트 파티클(Particle)로 표현하였다.  
 미디어아트로 복원된 대성황사의 빛은 세상 어디로든 퍼져나가 다시 우리 곁에 머문다.

### 6. 한지 쉼도우 라이팅 2

철사당 2



작가 정도행

#### | 우리 곁의 철사당

농사의 진흥, 학문의 흥기, 군정의 엄정, 송사의 간명, 부세의 균정, 호구의 정리, 간찰의 금식 등 일곱 가지 정사(政事)를 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철사당이다.  
 대도호부 관아의 철사당에서는 7가지 업무를 통해 이 지역이 안녕과 평온함에 이르게 하였다.  
 철사당의 건재로 행복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7쪽의 병풍 형식으로 구현하였다.

### 7. 글라스 미디어아트 1

철사당 대청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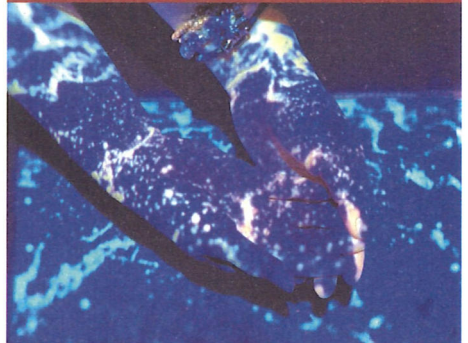
작가 이주비

#### | 공명 [Resonance]

<공명, Resonance>은 철사당을 찾은 관객을 물결치는 바다 위로 데리고 간다. 기와로 된 건축물의 모양을 한 유리 조형 작품인 <공명>은 물의 심상을 그 속에 담았다. 수많은 유리 기와들이 만들어내는 물결의 파동을 따라 우리의 상상력은 요동치고 때론 잠잠해지며 퍼져 나간다.

### 8. 미디어 수조

담장 뒤



#### | 깨달음을 위한 세수[洗手]

치유와 재생을 상징하는 물로 더러움과 괴로움을 씻어내고 비로소 신을 만나러 간다.  
 내 안의 신성을 깨닫기 위해 이전의 나를 씻어내는 의식을 미디어아트로 재현한다.





## 9\_ 터치 인터랙션 아트

칠사당 은행나무



작가 김시랑

## | 인연 [Destiny]

건축물의 역사는 건물만이 아닌 그곳에서 스쳐 지나간 인연과 앞으로의 인연을 맞이하며 함께 살아가는 역사이다.

칠사당의 보호수로 있는 은행나무를 통해 과거의 인연부터 미래의 인연까지를 미디어아트로 시각화하여 우리에게 있는 인연의 소중함을 빛으로 표현하였다.

## 9\_ 터치 인터랙션 아트

칠사당 은행나무



작가 한경담

## | 강릉 별숲

강릉. 그리고 별이 종종 떠 있는 하늘을 뜻하는 순우리말 별 숲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강릉 별 숲.

현재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빛은 수천 광년 떨어진 별이 과거에 내뿜은 빛이다.

미디어아트 기술을 사용하여 강릉의 문화유산들이 지닌 지난날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오늘 밤하늘의 별 숲으로 새롭게 수 놓는다.

## 10\_ 담장 맵핑

칠사당 화장실 담장



작가 김영태

## | ‘하람이 되어..’

하람은 순우리말로써 ‘하늘이 내린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늘이 내린 강릉 수호신, 범일국사의 뜻은 옛 시간의 어둠을 밝히고, 다시 이 빛은 오늘의 우리를 비추며 간직된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의 수행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우리도 마음의 빛의 여정을 따라 하람이 되기를 바란다.

## 10\_ 담장 맵핑

칠사당 화장실 담장



작가 이다영

## | 스승, 범일

강릉 단오제의 주신인 범일국사는 역사적, 종교적 실존 인물이 사후에 지역의 수호신이 되어 강릉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범일국사의 “견해를 갖지 말고 스스로 진리에 이르라.”라는 가르침은 변화무쌍한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

**10. 담장 매패**

칠사당 화장실 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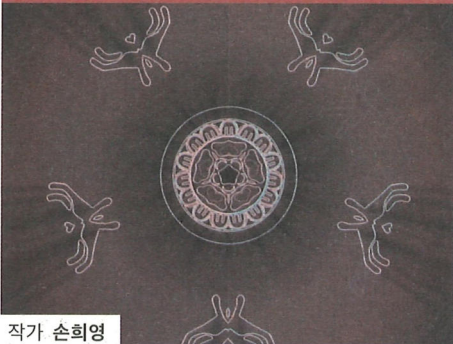
작가 Jaye

**| 단청매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찾아온 한국의 여름. 그해 뜨거운 태양을 노래하던 매미의 울음소리를 기억한다. 그들의 노래는 나의 새로운 인생을 알리는 사이렌이었다. 한자로 선(蟬)이라 쓰는 매미는 신선 선(仙)과 같은 발음으로 얽혀 신성하다고 여겼다. 신성한 곤충 매미에 길상을 상징하는 문양을 함께 하여, 늘 새로운 여정을 나서는 우리의 뜨거운 성장을 응원하고자 하였다.

**11. 만화경**

의운루 앞 잔디광장



작가 손희영

**| 칠사형통**

대도호부 부사의 근무처였던 ‘칠사당(농사, 호구, 교육, 병무, 세금, 재판, 풍속)’의 기능을 전통 문양들을 모티브로 하여 ‘칠사七事가’ ‘형통하여 이루어지다’ 의미를 담았다. 바닷가 마을 강릉의 풍여, 풍요를 기원하는 물고기 요소와 인물적 요소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형태의 시각적 이미지로 제작하였다. 우리의 기원이 하늘에 닿기를 빌어본다.

**11. 만화경**

의운루 앞 잔디광장



작가 권소영

**| 볼 수 없는 이미지**

우리는 늘 작은 구멍으로 전체를 본다. 하지만 온전한 전체의 이미지를 볼 수는 없다. 능동적으로 본질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여백을 채워 나가는 것이다. 강릉 문화유산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 우리의 기억을 채워 넣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

**11. 만화경**

의운루 앞 잔디광장



작가 노연우

**| 칠사일학 [七事一鶴], 빛으로 말하다**

만화경 속 이야기는 학바위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범일국사의 탄생 신화에 등장하는 백학, 붉은 열매, 두 날개 등의 개체들이 등장하여 학바위의 전설을 풀어나간다. 이어 강릉의 매화꽃, 가시연 등의 대표적인 꽃들을 활용하여 계절의 흐름을 표현하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관아의 7가지의 업무를 대도호부관아의 문양들로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3면에 비친 영상의 이미지들을 따라 강릉의 이야기를 만화경 속에서 만날 수 있다.





## 12\_ 인피니티 미러

의운루 앞 잔디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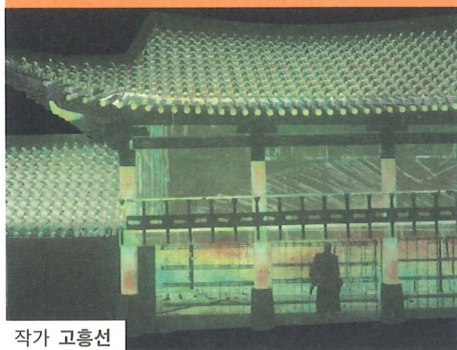


## | 바람[希/wish]의 빛

'바람의 빛: 인피니티 당간지주'는 전면에 부착된 LED 조명이 거울에 무한 반복되어 중첩되는 무한 공간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중앙에는 30분마다 우리의 바람을 담은 빛이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진다.

## 13\_ 미디어파사드

아문(안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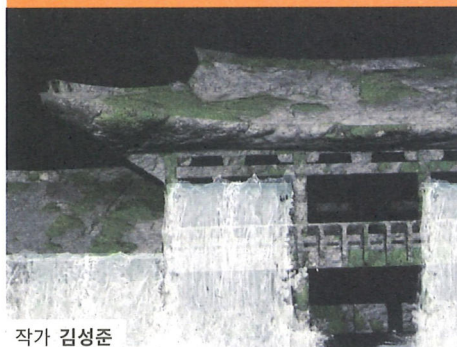
작가 고희선

## | 평상심이도[道]

시작이 끝나고 끝이 곧 시작이니, 하나의 등근 수레바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돌고 돌아 하나가 되는 역사의 궤적을 표현코자 하였다. 시간이라는 역사의 궤적 속에서 범일국사께서 설파한 '마음의 깨달음'에 대한 사상이,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였지만 지혜로 함께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지혜를 빛으로 다시 듣는다.

## 13\_ 미디어파사드

아문(안쪽)



작가 김성준

## | 수호의 빛

천년을 이어온 강릉 단오제의 주신인 대관령 국사성황으로 신앙이 되는 범일국사. 이곳 강릉대도호부관아 아문에서 화려한 빛으로 깨어난 범일 국사의 장엄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난다. 그가 건네는 수호의 빛 속에 우리는 삶을 통과할 본질적 힘을 얻는다.

## 13\_ 미디어파사드

아문(안쪽)

수호신  
빛에 스며들다

작가 황영식

## | 강릉의 수호신, 빛에 스며들다.

옛 명주지역의 수호신으로 신앙이 되는 범일국사의 탄생 설화 이야기를 빛에 담았다. 그의 삶의 기록이 다채로운 문양과 색으로 스케치 되어 강릉의 문화유산과 신화가 빛으로 발하는 찬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조당집)통도사 소장자료 제공]



작가 정해관

### | 다시 피는 해방의 꽃

‘다시 피는 해방의 꽃’은 대성황사의 슬픈 역사의 기억을 진리, 자유, 해방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미디어아트를 활용하여 현대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에 펼쳐 놓았다. 고풍스러운 전통 한옥의 실루엣과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조합하여 새롭게 창조한 공간을 통해, 과거의 슬픔을 딛고 화려하게 피어난 우리의 공간을 새롭게 피어나고자 한다.



작가 조민선

### | Waiting for rising sun

<Waiting for rising sun>은 범일국사의 탄생설화에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해 신화의 판타지를 완성하였다. 처녀의 몸으로 석천 우물에 담긴 해를 마신 뒤 범일을 잉태하였고, 학의 돌봄으로 살아난 범일국사의 신이 한 탄생설화의 판타지로 속으로 관람객을 초대한다.



작가 고희선 작곡 및 들비 아트 모스 믹싱 동풍스튜디오

### | 온기

천년의 도시, 강릉이 오늘까지 삶의 터전이 되었던 것은 이곳에 흐르는 따스한 온기 때문일 것이다.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온기, 이웃 간의 온기, 신이 돌보아주는 모든 기운은 내일의 강릉도 따스하게 품어 줄 것이다.

본 콘텐츠는 2023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실증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0 강릉문화재야행에서 선보였던 미디어파사드 작품을 이머시브 사운드 콘텐츠로 새롭게 제작하여 선보이는 작품이다. 들비에서 개발한 최신 객체기반 3D 서라운드 음향을 총 29개의 스피커 시스템으로 구현한 입체음향 작품이다.



### | 합일의 빛

강릉의 수호신인 범일국사는 천년의 축제 강릉단오제의 주신입니다. 강릉단오제는 무속신앙, 불교, 유교가 하나로 합일되는 바람의 현장으로 그 빛을 3개의 터널과 빛으로 형상화 하였다.





## 17. 임영관 돌담 파사드

임영관 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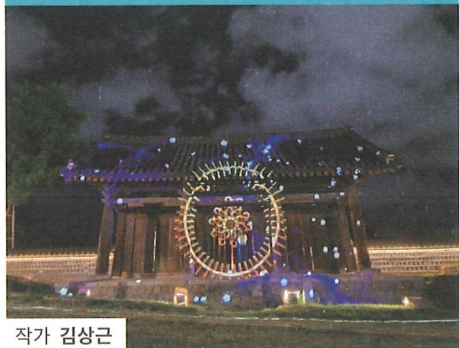
작가 고희선

## | 마음의 씨앗, 생각의 꽃

마음을 닦는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팔정도의 과정을 미리 헤드 기술과 장자마리로 표현하였다. 영상을 거울로 반사하여 사방으로 회전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표현하였다. 깨달음을 찾아가는 과정이 특별하지 않음을 설법하신 범일국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

## 18. 미디어파사드

임영관 삼문



작가 김상근

## | 시간의 문, 임영관 삼문

고려시대 건축 양식의 진수를 보여주는 임영관 삼문. 고려시대 장인들의 건축 미학은 천년의 시간을 지탱할 수 있게 하였다.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임영관 삼문의 건축적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다시금 일깨워 보고자 한다.

## 18. 미디어파사드

임영관 삼문



작가 허이나

## | 풍요의 문, 가든 오디세이

임영관 삼문에 시공간의 틈을 내어 안녕과 풍요의 신들이 살고 있는 정원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한낮에 탐스럽게 열린 석류나무 아래 쉬고 있는 토끼, 연꽃이 만발한 물가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 깊은 밤 달의 고요한 시선 아래 모란꽃이 황홀한 빛으로 춤을 추는 풍요의 정원에서 침과 평안의 시간을 선물한다.

## 18. 임영관 삼문 파사드

임영관 삼문



## | 2023 강릉대도호부관아 미디어파사드 공모전 수상작

국보 임영관 삼문의 역사적 가치와 건축학적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미디어파사드 공모를 진행하였다. 공모전 수상작 19개의 미디어파사드가 상영된다.

## 19\_ 라이트 정원

임영관 삼문 후면



### | 신의 정원

고려 시대에는 중앙 관리들이 유숙을 하던 곳이었고, 조선 시대에는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며 임금의 향해 망꺽례를 지내던 곳이다. 이곳 임영관 삼문의 후면을 찬란한 빛이 노니는 공간으로 신의 정원을 조성하였다.

## 20\_ 식물학 소통

임영관 삼문 후면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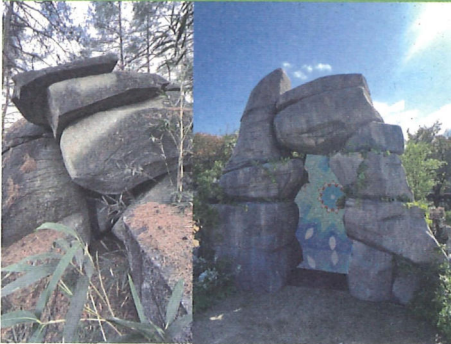


### | 식물학[botany]

미토콘드리아로 시작한 생물의 진화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존재하게 하였다. 식물도 소통할 수 있을까? 꽃의 향기를, 혹은 관엽식물의 나뭇잎이나 줄기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만지면 소통이 시작될 것이다. 식물의 이야기가 들릴 것이다.

## 21\_ 인피니티 미러룸

임영관 삼문 후면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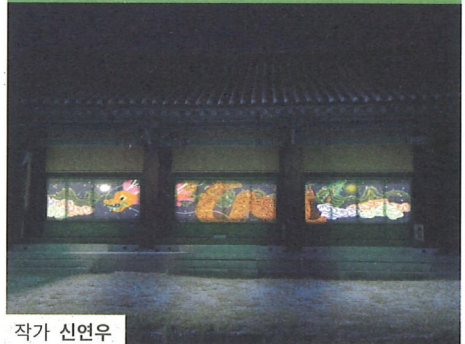


### | 생명의 방, 학바위

강릉시 구정면에 위치한 범일국사의 탄생 신화의 장소인 학바위를 구현하였다. 앞서 만화경으로 들여다 본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 예술의 공간성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의 방, 학바위'는 생명의 에너지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 22\_ 한지 쉼도우 라이트링

종대청



작가 신연우

### | 틈,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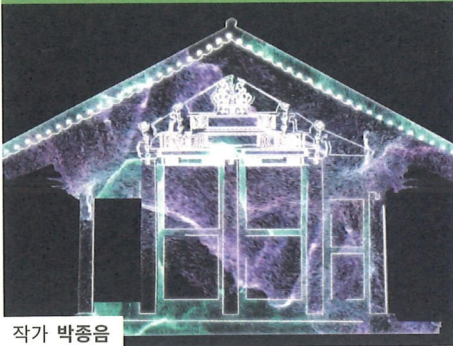
안과 밖이 겹쳐지는 틈새인 "창호지"에서 영감을 받았다. 도시의 네온사인과 곱게 물들인 색동저고리는 겹쳐질 수 없는 요소들일까? 멀어 보이는 두 간극 사이에는 분명히 겹치는 지점이 있다. 겹대기는 계속해서 변할지 언정, 안에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다. 현 시대에서 한국 고유의 것들을 바라보며 현재와 과거가 겹치는 틈을 그려냈다





## 23\_ 전통 파티클

중대청 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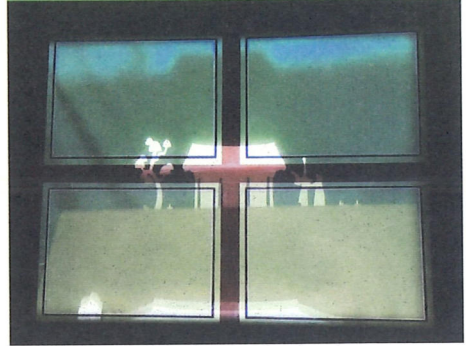
작가 박종음

## | 빛의 유산

천년의 도시 강릉의 문화를 미세한 빛 입자의 군무로 조각하였다. 인류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의 총체인 문화는 인류의 지혜이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지혜는 빛이 되어 미래를 밝히는 길잡이가 된다. 그렇게 새로운 빛의 유산이 창조된다.

## 24\_ 그림자 영화관

중대청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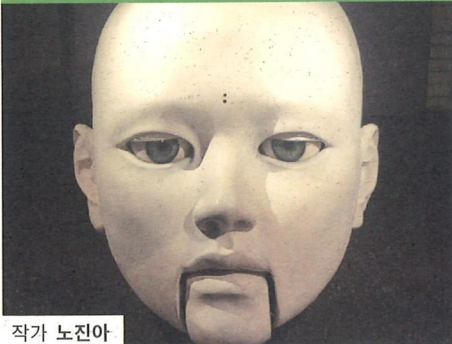
## | 그림자 영화관

[A shadow movie theater]

미국에서 시작된 최초의 영화관 '니켈로디온'은 미국의 5센트 니켈화를 말한다. 당시 '니켈로디온'의 입장료는 5센트였기 때문에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니켈로디온의 '요지경'은 오늘날 영화관의 시초가 되었다. 옛 영화의 시작을 대도호부 관아 주변의 주요 건축물과 함께 미디어아트로 즐겨본다.

## 25\_ 인공지능 작품

전대청



작가 노진아

## | 히페리온의 속도

히페리온의 속도(The Velocity of Hyperion)는 인공지능 기계를 상징하는 대형 머리로 구성된 작품이다. 머리는 관람객과 눈을 맞추고, 입을 벌려 인간화되어 가고 있는 기계의 처지를 대변하여 관객과 대화한다. 머리의 대화 방식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전시가 되는데, <히페리온의 속도>는 관객과의 1대 1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의 속도와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 25\_ 인공지능 작품

전대청

작가 노진아

## | Garden of evolution

고대 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다양한 동식물들이 진화의 정원 안에 3D 스캐닝 및 3D프린팅 되어 있다. B.Mazlish는 그의 저서인 <네 번째 불연속>에서 인간 또한 진화의 과정 내에서의 하나의 동물일 뿐이라는 다윈의 진화론이, 인간이 다른 생물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생각을 전복시켰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인간의 창조물인 기계에 비해서 우월한 존재라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모든 존재는 자연 안에서 공생하고 진화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진화 방향과 함께 가는 기계와 공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26\_ 글래스 미디어아트 2**

동대청



작가 이주비

**| 평상심시도 [平常心是道]**

<평상심시도>는 조각 후 가마 작업을 통해 탄생한 136개의 흑백 유리패널로 이루어진 설치 유리 조형 작품이다. 유리라는 투명성을 가진 매체는 빛을 통해 굽이치는 기와 속에 물의 평상심을 비추어 낸다. 대청에 앉아 작품 속에서 일렁이는 파도의 물결을 가만히 응시하며 잠시나마 현실 속 번뇌를 잊고 사색의 시간을 갖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27\_ 공간 조형물 1**

동대청 우측마당



**| 빛의 문**

강릉의 수호신들이 이동하는 공간의 문을 아치 형태의 문으로 형상화하였다. 관람객들은 아치형의 빛의 문을 통해 신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할 수 있다.

**28\_ 미디어파사드**

전대청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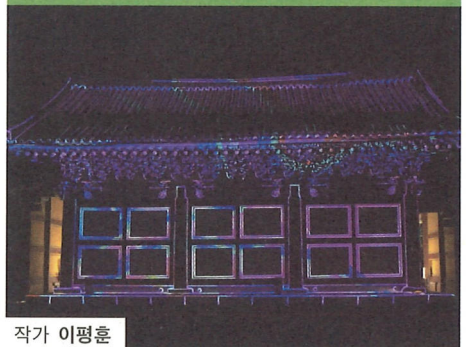
작가 김문우

**| 안녕과 풍요의 기원**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선조들의 바람을 오방색과 전통 문양들을 소재로 하여 재해석하였다. ‘황, 청, 백, 적, 흑색’으로 이루어진 오방색은 불교적 양식에서 유래되기도 하였으나 ‘색동저고리, 복주머니’ 등 우리의 민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색 문화의 중심에 자리한 오방색의 화려한 향연을 미디어파사드로 즐길 수 있다.

**28\_ 미디어파사드**

전대청 후면



작가 이평훈

**| 전대청, 하루를 보다**

‘범일국사 신화의 빛은 전대청에도 어김없이 비춘다. 그 신비로운 빛은 과거 전대청의 하루를 현대 시대로 끌고 온다.’ 범일국사 신화의 신비로운 빛이 매개체로 과거 전대청의 역할, 역사적 상징성을 현대 시대의 전대청에 투사함으로써 이를 통해 어제에서 오늘로 이어지는 역사를 그려냈다.





**28\_ 미디어파사드**
전대칭 후면

**미디어아트교육  
교육생추가모집**

2023 강릉대도문화관이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연계 프로젝트

[추가모집] 7월 19일(수) ~ 7월 21일(금) 16:00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gncckkyr@gmail.com)

▶ 신청대상 | 2023년 미디어아트 교육생

▶ 신청기간 | 7월 19일(수) ~ 7월 21일(금) 16:00

▶ 신청처 |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팀

▶ 문의 | 010-9700-1111

**2023 강릉대도문화관이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시민 영상 페스타**

"여러분의 열성함 문화유산에 미디어파사드 예보어요!"

- ▶ 신청대상 | 일반 시민 누구나
- ▶ 주 제 | 자유 주제 (역사, 문화, 환경, 지역 발전 등)
- ▶ 신청규격 | 강릉대도문화관 홈페이지
-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 신청장소 |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팀

## 미디어아트 교육생 작품 & 시민 영상 페스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아트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제작한 교육생들의 미디어파사드 작품 7점을 소개한다.

교육생 김새름, 오지율, '이재민 이현정, 조윤경, 최승필 한은진

강릉 시민들의 일반 영상들을 미디어파사드로 보여주려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회차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영상들을 상영한다.

**29\_ 공간 조형물 2**
서현 옆 마당

## 빛 든 구름

공기 중에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을 잡아매어 빛을 달았다. 기어이 꿈을 찾아 빛으로 키워내는 우리의 오늘처럼...

**30\_ 미디어 다도**
서현

작가 김양희

## 빛을 담은 다도

강릉의 전통 문양이 디지털 콘텐츠로 가공되어 창상에 빛으로 수 놓아진다. 관객이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 넘기는 한 모금의 차에 안녕과 풍요를 담아 건넨다. 우리 곁에 평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31\_ 이머시브 사운드**
서현

작가 영상 및 작곡 및 돌비 애트 모스 믹싱 동풍스튜디오

## 네이처 이머시브 "강릉, 자연의 향기"

강릉의 아름다운 자연을 2.4:1 시네마스코프와 앰비소닉 오디오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X스크린과 돌비애트모스 7.1.4로 구현되는 실감 사운드 공간에서 시각, 청각, 미각, 촉각 등 오감의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

2023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실증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머시브 사운드 콘텐츠를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 제작된 콘텐츠이다.

### 32\_ 미디어파사드

중대청 좌측



작가 윤대원

#### | 열꽃 [江陵大都護府 官衙]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범일국사(梵日國師)’에 영감을 받았다. 수행을 통해 진리에 이르고자 했던 범일국사의 수행의 모습을 우리 신체 중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손가락에 비유하였다. 음악에 맞춰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손가락을 패턴화시켜 그의 뜻을 기리는 ‘문(양)’을 표현하였다.

### 32\_ 미디어파사드

중대청 좌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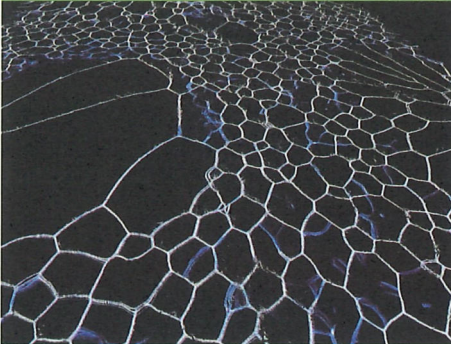
작가 Juae

#### | 躋[천]-Elysium

‘躋(천)-Elysium’는 임영관의 복원 과정과 중대청을 소재로 ‘이상향으로의 여정’을 표현한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다. 작품 제목인 ‘躋(천)-Elysium’에서 躋(천)은 ‘거듭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뜻을 나타내는 이를 지(至:이르다, 도달하다)와 음을 나타내는 글자 있을 존存(존→천)이 합(合)하여 형성된 문자다. Elysium은 이상향을 뜻한다.

### 33\_ 인터랙티브 바닥 맵핑

중대청 좌측 마당



#### | 물의 반영

물과 불(빛)을 다룰 수 있게 된 인류는 문화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물과 불(빛)은 생명의 원천이자 삶의 순수한 에너지이다. 공존하기 어려운 두 에너지가 하나가 되어 미학을 선사하는 ‘물의 반영’을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로 구현하였다. 당신이 걷는 발걸음마다 놓일 ‘물의 반영’은 내일로 향하는 당신의 오늘을 아름다운 빛으로 투영해줄 것이다.

### 34\_ 소원나무

중대청 좌측 마당



#### | 소원 나무

신과 함께 노닐던 공간에서 신에게 바라는 소원을 적어 건다. 오늘의 소원은 내일의 일상이 될지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소원을 기록한다. 그 간절한 바람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 35\_ 소원 영수증 사진기

중대청 좌측 마당



## | 소원 영수증 사진기

신과 함께 노닐던 공간에서 신에게 바라는 소원을 사진으로 남긴다. 오늘의 소원은 내일의 일상이 될지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록한 소원과 나의 하루를 사진으로 남긴다.

## 36\_ 다중 홀로그램

의운루 숲속



작가 유현하

## | 일필휘지

대관령과 닮은 넓은 스크린을 도화지 삼아 강릉의 풍경을 수목화와 밤하늘의 별빛으로 표현하였다.

## 37\_ 가야금 맵핑

의운루 앞



작가 김봄

## | 우리의 빛, 우리의 소리

[Instrumental Series XVI]

빛이 머물다 가는 시간, 음악을 눈으로 보고, 시각예술을 귀로 들으며 사색을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우리 문화유산의 색이 만연한 강릉의 대도호부관아 내 의운루에서 푸른 자연과 시원한 바람, 그 위에 얹어 울려 퍼지는 우리의 소리와 빛을 통해 치유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 38\_ 대성황사터 VR

대성황사터 표지석



작가 박대선

## | 현상 [現想]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대성황사 모습을 대지에 남아 있던 시간의 흔적을 찾아 VR 속 디지털 랜드아트로 구현한다.



### | 대도호부관아, 빛의 장막

강릉의 대표 문화유산, '대도호부관아'라는 정적인 공간에서 관아 외벽에 다양한 한국 전통 영상을 입혀, 관람객들을 집중시키고 끌어들이는다. 이를 통해 대도호부관아를 더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동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 | 몽유 [夢遊]

강릉의 상징물인 호랑이와 고니, 그리고 전통 문양을 작품에 접목하였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 현장에서 소통하며 즐거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 | 도깨비 수레

영상 음악 작가 김 서방은 강릉 수호신의 신화적 배경 장소에서 소리를 채집하던 중 웅연계곡에서 도깨비불을 발견한다. 예부터 까탈스럽다고 소문난 도깨비불도 김 서방에게는 너그럽기만 했다. 김 서방은 도깨비불의 좋은 기운을 족자에 담아 이동식 수레에 걸었고, 수레를 끌고 다니며 좋은 기운이 넉넉히 담긴 사운드를 나눠주고 다닌다.



### | 플로팅 [floating]

강릉 신화의 상상 속 소재를 현실 공간에서 AR로 재현한 작품이다.






## 2023 강릉한복문화창작소 한복문화주간



한복문화창작소  
HANBOK CULTURE CREATIVE SPACE

- 주요내용  
강릉의 한복과 전통놀이 및 향낭, 땡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 기간  
9월 19일(목)~22일(일) / 총 4회차
- 인스타그램  
 gn\_hcc '강릉한복문화창작소구슬샘'

## 행사 내 체험 프로그램

**소원나무의 [홀로그램 엽서]에 소원을 적어 걸어보세요!**

임영관 마당에 위치한 소원나무에서 홀로그램 엽서로 소원도 걸고  
영수증 사진기로 사진도 찍어 보세요.

## 기념품 및 이벤트 소개

**칠사당 입장시 나누어 드리는 종이[하미는,**

신에게 올리는 신주를 빛을 때 부정한 것을 삼가기 위한 종이입니다. '하미'를 입에 물고 몸과 마음의 자세를 정돈하여 더욱 몰입감 있게 강릉대도호부관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를 관람해 보세요!

**관람객 만족도 조사 참여 시 [미디어아트 기념품]을 드립니다.**

QR코드로 관람객 만족도 조사 참여 후

강릉대도호부관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특별한 굿즈를 받아주세요!

※ 매일 선착순으로 지급



2023 강릉대도호부관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 주차장 운영장소



구 분	위치	주차장소
매일 [월~일]	P-1	홍제동 공영주차장
	P-2	환경발전소 공영주차장
	P-3	남대천 제방길·둔치
주말 [금, 토]	P-4	강릉초등학교
	P-5	해람중학교

## 셔틀버스 운영 시간표

안목 → 행사장(강릉대도호부관아)

순	큰매향매순대국 (안목점)	세인트존스 호텔	씨마크 호텔	DN경포 비치점	선교장	오죽 한옥마을	행사장 (강릉대도호부관아)
1	18:00	18:10	18:15	18:20	18:30	18:40	19:00
2	19:00	19:10	19:15	19:20	19:30	19:40	20:00
3	20:40	20:50	20:55	21:00	21:10	21:20	21:40
4	21:40	21:50	21:55	22:00	22:10	22:20	22:40

행사장(강릉대도호부관아) → 안목

순	행사장 (강릉대도호부관아)	오죽 한옥마을	선교장	DN경포 비치점	씨마크 호텔	세인트존스 호텔	큰매향매순대국 (안목점)
1	19:20	19:40	19:50	20:00	20:05	20:10	20:20
2	20:20	20:40	20:50	21:00	21:05	21:10	21:20
3	22:00	22:20	22:30	22:40	22:45	22:50	23:00
4	23:00	23:20	23:30	23:40	23:45	23:50	24:00

2023 강릉대도호부관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관람 문의

☎ 033-823-3225

🌐 gnma.or.kr

📍 culture\_tour\_